

한경 BUSINESS



자오샤오강 중국난처그룹 회장 인터뷰
“범아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꿈꾼다”

주가 약세 삼성생명의 미래는
‘일석이조’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통신요금 인하가 불편한 이유

글로벌 리더 우뚝 한국 휴대폰 秘스토리

최고 명가 장재식 가문에 배운다

위기서 빛 발하는 고수익 틈새상품들
SC제일은행 노사에 전문이 감도는 까닭
‘서민에게 부메랑’ 보금자리주택의 아이러니



값 3,500원



한국경제신문



브라질 항공 산업

항공기 생산 대국... 중형 제트기 선두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거대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나 세계적 광물 기업인 발리(Vale)가 있다는 것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은 세계 3~4위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EMBRAER)사가 브라질 기업이라는 사실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엠브라에르의 매출은 535억 달러에 이르고, 순이익은 3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엠브라에르는 70~120석 규모의 중형 제트기 분야에서 캐나다 봄바디어(Bombardier)와 함께 세계적인 생산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취급하는 대형 제트기와 소규모 개인 제트기 사이의 이른바 틈새 시장이다. 엠브라에르의 주력 항공기인 엠브라에르 170, 엠브라에르 175, 엠브라에르 190, 엠브라에르 195가 모두 이 규모에 해당하는 제트기들이다. 올 1분기 중형 제트기 분야는 엠브라에르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한다. 중형 제트기 외에 군사용 항공기와 개인 제트기 분야에서도 엠브라에르는 세계적 규모를 자랑한다.

틈새인 70~120석 제트기 시장 공략 성공

엠브라에르는 1969년 브라질 국영 회사로 출발했다. 1994년께 부채가 10억 달러를 넘는 등 재무적 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민영화됐다. 당시 미국계 투자은행인 웨스터인 페렐라(Wassertein Perella)와 브라질 민간 컨소시엄이 각각 20%, 40%의 지분을 인수했다. 현재 엠브라에르의 주식은 브라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엠브라에르는 160억 달러를 수주했다. 그런데 엠브라에르가 생산하는 항공기 중 특정 기종은 부품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엠브라에르가 차지하는 시장 지위에 비해 브라질 내부의 기반 항공 산업이 미숙하다는 얘기다. 외국의 항공기 부품 업체에는 엄청난 규모의 수요처다. 현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는 중형 제트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진은 엠브라에르가 제작해 델타항공에 납품한 중형 비행기.

재 엠브라에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C&D 아에로스페이스(Aerospace), 제너럴일렉트릭(GE), 해밀턴 선스트랜드(Hamilton Sundstrand), 파카(Parker, 이상 미국), 가와사키중공업(일본), 대한항공(한국), 리페르(Liebherr, 독일), 소나카(Sonaca, 벨기에), 다소시스템(Dassault Systems, 프랑스), 가메사(Gamesa, 스페인) 등이 있다.

항공기 부품 업체가 엠브라에르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사업 기회지만 쉽지 않은 운영 기준과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엠브라에르가 국제항공품질그룹(IAQG)의 멤버이기 때문에 납품 업체는 IAQG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 AS9100 인증 업체로 등록돼야 한다. 또한 엠브라에르의 자체적인 납품 업체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납품 업체 품질 기준은 납품 품목에 따라 7종류로 구성돼 있는데, 엠브라에르는 매년 6월과 12월에 이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해 엠브라에르의 납품 업체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관문을 통과하면 엠브라에르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